

農夫歌 註解

柳 鐸 一

여기에 수록하는 農夫歌는 姜鎰雙교수가 大田實業高等專門學校 論文集 第5輯(1974)에서 紹介한 것을 臺本으로 하여 그것을 註釋한 것이다.

이 農夫歌는 筆寫年代 未詳의 「農夫歌帖」에 실리어 傳하며 原作者는 勤齋 尹禹炳(1853~1930)이다. (本歌辭에 대한 詳細한 書誌事項 및 作者推定の 典據는 上記 論文集에 실려 있는 姜鎰수 ‘農夫歌에 對하여’를 참조하기 바란다.)

壬·丙兩亂以後 社會의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農村社會는 分化를 가져 왔고 庶民의 身分上昇으로 兩班의 數가 불어나서 生活 能力이 없는 兩班은 먹어야 산다는 현실 때문에 부득이 生産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歌辭는 이와 같은 背景에서 한 때 科學를 본 적도 있는 한 선비가 농민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 즉 당시 양반의 몰락상을 잘 그려낸 沒落兩班의 所懷歌辭인 것이다.

4·4調의 基本型을 지키고 있으며 그 行文이 雜駁하여 일관된 맛은 없지만 그가 느낀 현실이 진솔하게 表現되어 있는데서 好感이 가는 作品이다.

하는 수 없이 논밭에 나가 일을 해서 家庭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농사 일을 모르던 선비의 아픔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서 이 作品의 意義가 있음은 勿論, 끝내 그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을 극복하고 농사일에 적응하여 손색없는 농부가 되었다는 현실극복의 그 의지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소개된 歌辭 作品 중에서 글만 읽던 선비가 농부로 몰락하는 樣相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현재로는 이것을 능가할 것이 없다고 보기에 한글로만 된 本文은 현대철자법에 따라 고치고 註釋을 붙여서 다시 여기에 소개한다.

農 夫 歌

尹 禹 炳(1853~1930)

어와 벗님내야
 밭이야 많진마는
 옥야(沃野) 천리(千里) 넓은 밭은
 가천백(佳阡陌) 일등양전(一等良田)
 우주(宇宙)에 비겨서서
 구년홍수(九年洪水) 요(堯)의 밭은
 역산(歷山)²⁾의 순(舜)의 밭은
 구주우공(九州禹貢) 대우(大禹)밭은
 칠년대한(七年大旱) 탕(湯)의 밭은
 경자양반(耕者讓畔) 문왕(文王)밭은
 빈풍칠월(邇風七月)⁷⁾ 주공밭은
 불여노롱(不如老農) 공자(孔子)밭은
 십오경(十五頃) 안자(顔子) 밭은
 오묘지택(五畝之宅) 맹자(孟子)밭은
 그 후로 묵은 밭은
 하남(河南)¹³⁾신안(新安)¹⁴⁾넓은 들에
 천전(天田)을 구경 말고
 남의 밭을 매지 말고
 사서삼경(四書三經) 양전 삼아
 염계(濂溪)¹⁶⁾의 배를 건너
 길이 멀고 날 저물면
 계명자자(雞鳴孜孜)¹⁹⁾ 가는 밭이
 이리 오소 이리 오소

밭 구경 가자서라
 구경할 밭 다르니라
 부가옹(富家翁)의 구경처요
 속민(俗民)의 생애처(生涯處)라
 상상고(上上古)를 생각하니
 고궐성공(告厥成功)¹⁾ 구경하고
 만고대효(萬古大孝)³⁾ 구경하고
 상상중중(上上中中)⁴⁾ 구경하고
 대우천리(大雨千里)⁵⁾ 구경하고
 우예석송(虞芮昔訟)⁶⁾ 구경하고
 가색간난(稼穡艱難) 알리로다.
 뇌재기중(飯在其中)⁸⁾ 구경하고
 불개기락(不改其樂)⁹⁾ 구경하고
 제민지산(制民之產)¹⁰⁾ 구경하고
 정자(程子)¹¹⁾ 주자(朱子)¹²⁾ 잘아내니
 구경 가기 더욱 좋다
 심전(心田)을 구경 하소
 내 밭을 매어서라
 예서(禮鉏)¹⁵⁾로써 매어서라
 명도(明道)¹⁷⁾의 밝은 길로
 회암(晦菴)¹⁸⁾에 들어 자소
 종덕심전(種德心田)²⁰⁾ 그 아닌가
 저기 가는 저 벗님아

굽은 길을 제쳐 놓고
 이 밭 저 밭 던져 두고

천지(天地) 만물(萬物) 생기실제
 삼강오륜(三綱五倫) 분명(分明)하니
 홍몽세계(鴻蒙世界) 조판(肇判)할제
 나무 열매 따서 먹고

의례문물(儀禮文物) 있을소냐
 수인씨(舜人氏)²²⁾는 불을 내어
 복희씨(伏羲氏)²³⁾ 고운 가죽
 여와씨(女媧氏)²⁴⁾ 생황(笙簧)²⁵⁾ 지어
 현원씨(軒轅氏)²⁶⁾ 주거(舟車)지어
 계천입극(繼天立極) 우리 성인
 상백초(嘗百草) 약을 지어
 따비 장기 만들어서

만고백성(萬古百姓) 법(法)이 되니
 고금천하(古今天下) 대본 이라
 성현달사(聖賢達士) 누구 누구
 견묘자중(朕畝之中)²⁹⁾ 뒤실런가
 후적(后稷)³⁰⁾이 보리 내어
 신야(莘野)³¹⁾에 구경하니

조경모경(朝耕暮耜) 상하평에
 부춘산중(富春山中) 구름 속의
 남양초당(南陽草堂) 풍설(風雪)중에
 전원장무호불귀(田園將蕪胡不歸)³⁶⁾는
 휘서불고황금(揮鋤不顧黃金)³⁵⁾하니

조경야독(朝耕夜讀) 동백산에
 남산(南山)에 밭을 갈고
 불사이군(不事二君)경어야(耕於野)는

바른 길로 갈러 오소
 이 내 밭을 구경 하소

최귀(最貴) 할사 인생(人生) 이야
 부자유친(父子有親) 중할시고
 초매인물(草昧人物)²¹⁾ 임종 하다
 짐승 피를 마셨으니
 나무 없고 깃들었다

화식(火食)하기 가르치고
 남여혼인(男女婚姻) 가르치고
 풍류(風流) 하기 가르치고
 이제 불통(以濟不通)²⁷⁾ 하이시고
 신농씨(神農氏)²⁸⁾ 나져서니
 병든 사람 살게 하고
 밭 갈기를 가르쳤다

영세불망(永世不忘) 그 아닌가
 역대(歷代) 인물(人物) 솟솟 세니
 천하대본(天下大本) 힘을 썼나?
 구남이녀(九男二女) 섬겨서라
 파종지법(播種之法) 가르치고
 이운(伊尹)³²⁾이가 그 아닌가
 장저결니(長沮桀溺)³³⁾게 뉘 알며
 엄선생(嚴先生)³⁴⁾을 뉘 찾을까?
 와룡선생(臥龍先生)³⁵⁾ 일어나고
 도처사(陶處士)³⁷⁾의 고절(高節)이요
 관녕(管寧)³⁸⁾의 염개(廉介)르다
 동소남(董召南)³⁹⁾이 숨어 있고
 무예불치(蕪穢不治) 그 뉘시오
 왕촉(王蠹)⁴¹⁾ 충절 장할시고

에로부터 궁경중의(躬耕重儀)⁴²⁾

금세상(今世上)의 농부들이

슬프다 벗님내야

동지영야(冬至永夜) 긴긴 밥에

소이삭도(筍爾索縵)⁴³⁾ 새끼 꼬고

총옥(乘屋)⁴⁴⁾을 급히 하소

새벽 서리 찬 바람에

서사황량 야옹(西舍黃梁夜舂)⁴⁵⁾이라

부모침소(父母寢所) 냉돌(冷突)될까

일출사생(日出事生) 하였으니

삼월동풍(三月東風) 삼일우에

진눈에 가래질과

누구 누구 선수(選手)인고

우하(牛下)⁴⁷⁾의 좋은 거름

풀도 깨고 잎도 꺾어

농우(農牛) 있는 상농부(上農夫)는

농우(農牛) 없는 하농부(下農夫)는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언어수작(言語酬酢) 눈치 보니

소를 관연(款然)⁴⁸⁾ 주마 하면

복복차차(伏伏致謝)⁴⁹⁾ 돌아와서

아무 집의 실농우(實農牛)⁵⁰⁾를

전답(田畓) 같이 실시(失時)하면

동아부자(同我婦子) 가솔 다러

제란유골(雞卵有骨)⁵²⁾ 그 아닌가

초경(初耕) 같이 못다하여

훗길⁵⁴⁾을 보자 하니

팔죽같이 물은 땅에

성현군자(聖賢君子) 많긴마는

선비 궁경(躬耕) 아단말가

입립신고(粒粒辛苦) 들어보소

잠을 어이 다 잘손가

주이우모(晝爾于茅) 나래 엮어

시파백곡(始播百穀) 하나니라

손을 불며 거름 줌고⁴⁵⁾

용자상저(耨者相杵) 방아 찧기

혹산이초(或山而樵) 나무하기

일시(一時)라도 평안할까

봄 소식이 고(告) 하도다

마른논에 장기질을

장정(壯丁)이라 치하(致賀) 받고

박토 옥토(薄土沃土) 가려 내소

모자리를 절게 하소

초경재경(初耕再耕) 실시(失時)할까

소 얻으려 다닐 적에

세도택(勢道宅)에 다니는 듯

한 말 허락 근중(斤重)하다

백골난망(白骨難忘) 할 듯하고

제 집안에 장담(壯談)한다

사람마다 얻을소나

일년생계(一年生計) 그릇 된다

엿피남묘(饑彼南畝)⁵²⁾는 가는데

하필 비가 오는구나

그러굴러 모비⁵³⁾ 왔다

남의 이종(移種) 먼저 간다

모심기가 쉽다더니

다리 얇고 허리 얇고
 숙수(熟手)⁶²라도 어렵거든
 하로 한 때 쉬었으면
 낫을 갈아 깊어지고
 축장포(築場圃)⁶³를 얼룩하고
 만종(晩種) 겨우 필역(畢役) 되면
 폭양염천(暴陽炎天)쇄양(曬陽)⁶⁴하며
 청량립(靑涼笠)⁶⁵을 높이 쓰고
 쇠코중이⁶⁴ 뒹도 되다
 영초 한쌍 앞에 세고
 징 장구 곡조(曲調) 맞춰
 끓은 물에 김을 매니
 산유화(山有花)⁶⁶를 노래 하니

어서 오소 어서 오소
 이 농사를 힘 써 지어
 앙사부모(仰事父母) 먼저 하고
 풍년(豐年) 흉년(凶年) 한을 마라
 뒤 뚝 밑에 저 동무야
 앞바로태⁶⁷ 바람쇠야

비 오신다 비 오신다
 우아공전(雨我公田)⁶⁸ 먼저 하고
 하룻날을 근력(勤力)하면
 오늘날에는 앞들 매고
 강구 연월(康衢烟月) 격양곡⁷⁰은
 도도취흥(陶陶醉興) 못이기어
 장구⁷¹ 차고 우줄 우줄
 시화연풍(時和年豐) 호시절에

면상(面上)⁵⁵이 부숙 부숙
 배는⁵⁷ 일이 오작할까
 소복(蘇復)⁵⁸ 될 듯 하건마는
 논밭 모택(牟麥)⁵⁹ 베어서라
 급히 타작하온 후에
 논매기로 들어선다
 풍우중(風雨中)을 피(避)할소나
 녹사의(綠絲衣)⁶³를 어깨 메고
 호미를 목에 걸고
 용(龍)매기⁶⁵를 받았으며
 농군 풍류(農軍 風流) 거룩하다
 한출침배(汗出沾背) 목욕 감고
 그 곡조(曲調)에 하였으되

우리 군정(軍丁) 어서 오소
 나라 상납(上納) 하온 후에
 부혹처자(俯畜妻子) 하여서라
 흉년(凶年)인들 매양 들라
 호미질을 잘 하여라
 소리 곡조(曲調) 잘 받아라

전너 산에 들어온다
 수급아사(遂及我私)⁶⁹ 후에로다
 십일생계(十日生計) 되나니라
 내일에는 뒷들 매자
 고금(古今)이 다들손가
 호미들고 줍도 추며
 종일토록 즐겨하니
 농부 낙업(樂業) 종을시키고

농사 못한 궁(窮)한 선비
 춘초만정임 하옥(春草滿庭林下屋)에
 궁불능존(窮不能存)⁷³⁾ 하긴 마는
 손 비비고 꿰어 앉아
 부모처자(父母妻子) 기한 중에
 이따금 덧 장담(壯談)은
 승지참판(承旨參判) 차래 걸음
 한 양(兩) 두 양(兩) 빗을 낸들
 수수만명(數數萬名) 모였건만
 일신정력(一身精力) 다 들여서
 심조열중(心燥熱中) 욕심(欲心)이야
 김갑제(金及第) 이갑제(李及第)⁷⁴⁾는
 장안대도(長安大道) 홍진 속에
 나오던 날 용몽(龍夢) 길몽(吉夢)
 재상(宰相) 일가(一家) 찾아 가니
 한일년⁷⁵⁾ 돌 수청배(守廳甃)⁷⁶⁾는
 문객(門客)⁷⁷⁾ 틈에 끼어 앉아
 이목구비(耳目口鼻) 다 죽어도
 여러 날을 유(留)⁷⁸⁾ 할소나
 피리춘추(皮裏春秋)⁷⁹⁾ 누가 알까
 낙방거자(落榜舉子)⁸⁰⁾ 행색 보소
 안색초쾌(顔色憔悴) 꼬빠지며⁸¹⁾
 올라 갈 제 당당 기세(氣勢)
 집이라고 둔아 드니
 농사일흠(農事一畝)⁸²⁾ 안 지으니
 양식(糧食) 취대(取貸) 하여 보랴
 여전여곡(餘錢餘穀) 있는 사람
 갚을 여망(餘望) 없는 사람

기색(飢色)이 처량(淒涼)하다
 가도사벽(家徒四壁)⁷²⁾ 뿐이로다
 유업종사(遺業從事)⁷³⁾ 본분이라
 서시백가(詩書百家) 일삼으니
 선영(先榮)⁷⁴⁾ 제사(祭祀) 봉향할까
 진사급제(進士及第) 얼뜻하여
 군수(郡守) 목백(牧伯) 어머 같까
 감시(監試)⁷⁵⁾ 정시(庭試)⁷⁶⁾ 빠질소나
 과거(科擧) 할 이 저 혼자라
 글 한 장을 바쳤어라
 방상괘명(榜上掛名)⁷⁷⁾ 행여 뭇까
 사우팔자(四柱八字)⁷⁸⁾ 달랐던지
 신태(新來)⁷⁹⁾ 위 불며 간다
 이제 와서 허사로다
 반가 할 이 뉘 있을까
 시골 손님 품을 보고
 비승비속(非僧非俗)⁸⁰⁾ 고이하다
 오장육부(五臟六腑) 살았으니
 하로 이틀 회정(回程)⁸¹⁾한다
 발분축석(發憤蹴石)⁸²⁾ 쓸데 없다
 죽장(竹杖) 짚고 망혜(芒鞋) 신고
 다리 절룩 발 불웃고⁸³⁾
 내려올제 간 데 없다
 부모 굶고 처자 굶네
 추무담석(秋無擔石)⁸⁴⁾ 가련하다
 이집 가고 저집 간들
 실불실(實不實)을 알려주니⁸⁵⁾
 무얼 보고 빗을 줄까

낭패(狼狽)하고 돌아오니
 세상 천지 죄인(罪人)이라
 일용삼생(日用三牲)⁹⁷⁾ 고사 하고
 자식(子息)이라 이를소나
 실중처자(室中妻子) 돌아보니
 가장(家長)이라 이를소나
 양사부육(仰事俯育) 다 못하니
 일단사(一簞食)¹⁰⁰⁾ 일표음¹⁰¹⁾이
 순하인야(舜何人也)며 여하인¹⁰²⁾고
 주린 창자 큰이 잡고
 시이불견(視而不見) 뵈지 않고
 나무 없어 불 못너니¹⁰¹⁾
 옷이 어찌 절로날까
 사사빛도 많거니와
 날로 문전 색전리(色錢吏)¹⁰⁷⁾는
 가인산업(家人產業) 모르고서
 당상학발 감지지공(甘旨之供)¹⁰⁸⁾
 의관(衣冠) 서책(書冊) 전폐 하고
 보던 책을 깊이 넣고
 지계를 지고 보니
 죽을 죄를 지었던가
 함(函)진 아비 비양(非樣)¹¹⁰⁾인지
 도적(盜賊) 하다 들렸던가
 공부하던 동고(同苦) 친구
 수분안빈(守分安貧) 못하고서
 안빈(安貧) 등자(等字) 좋다하는
 가빈친로(家貧親老) 하였으면
 자르(子路)¹¹²⁾ 같은 군자(君子)라도

그 경색(景色)⁹⁶⁾을 볼 수 없다
 가빈친로(家貧親老) 자식 되어
 숙수지공(菽水之供)⁹⁹⁾누공 하니
 불효지죄(不孝之罪) 락대 하고
 아호한이처제기⁹⁹⁾리
 보처자(保妻子)도 못하도다
 무용지인(無用之人) 되단 말가
 안빈낙도(安貧樂道) 뉘가하리
 나도 아니 하여 불가
 성경현전(聖經賢傳)¹⁰³⁾ 보자하니
 독이무성(讀而無聲) 소리 없다
 빙고(氷庫) 같은 냉돌(冷突) 이요
 현순백결(懸鶉百結)¹⁰⁵⁾ 남루 하다
 공납(公納)¹⁰⁶⁾인들 하였으랴
 이것 주소 저것 주소
 울연(兀然) 독좌(獨座) 갈만 하면
 무얼 가져 하잔 말가
 농가자류(農家者類) 되리로다
 썼던 것은 높이 달고
 우습고도 한심하다
 뒤죽지름¹⁰⁹⁾ 결박한 듯
 허리 어이 곳곳한가
 얼골 어이 붉어지나
 대경소괴(大驚小怪) 손질¹¹¹⁾ 잡고
 하내차고(何奈此苦) 여차(如此)한가
 이내 말썸 들어 보소
 갈력경전(竭力耕田) 못할소나
 백리(百里)밖에 쌀을 지고

매품¹¹³⁾ 하여 양친(養親)하니
 채무전(彩舞前) 왕연(王延)¹¹⁵⁾이도
 옛 사람의 한일 보면
 춘춘(惓惓)하온¹¹⁶⁾ 천견(淺見)으로
 사롱공상(士農工商) 네 가지에
 농인(農人)이 되고 보면
 좌반(佐飯)¹¹⁷⁾ 받고 반찬 받아
 제손으로 친집(親執)¹¹⁸⁾ 하니
 유몽 퀘손(有藤籬猿) 대퇴밥¹¹⁹⁾을
 봉주사향(朋酒斯饗)¹²⁰⁾ 좋은 술을
 이 술먹고 이 밥먹기
 일 한 모양 볼작시면
 죽을 힘을 다 들여도
 아회저도 지천(至賤)¹²¹⁾이요
 사면(四面)에서 지천(至賤)할 제
 여차(如此) 여차(如此) 배울 적에
 물 많은 눈 모심으기
 짓은 눈 김매기는
 호미를 잘못 돌려
 흑좌흑우(或左或右) 살피 보소
 두 다리를 벌여 서고
 무른 논의 두 벌 지심
 신신적자(兢兢赤脚)¹²⁴⁾ 팔척장신
 전일숙공(前日熟工)¹²⁵⁾ 없었으니
 욕사욕사(欲死欲死) 이내 신세
 속거천리(速去千里) 잔하말가
 대장부(大丈夫) 세상에 나서
 생산작업(生產作業) 몰라서도

강혁(江革)¹¹⁴⁾의 지성(至誠)이요
 친극자미(親極滋味) 하였으니
 수괴지심(羞愧之心) 가이없다
 양친구궁(養親救窮) 퍼를 내니
 농사일이 근본이라
 위선(爲先) 식구(食口) 호구 된다
 노친(老親) 기갈(飢渴) 구급 하고
 제 농사(農事) 실시(失時) 할까
 하로 삼시(三時) 함포(含哺)하고
 실 때마다 삼사배(三四杯)라
 남과 같이 하건마는
 가련하고 염치 없다
 칭찬 받기 고사하고
 어분계도 지천(至賤)이라
 분괴지심(憤愧之心) 굳이 참고
 선생(先生) 제자(弟子) 분명 하다
 간(間) 고루기 극난(極難)하고
 감잡이¹²²⁾ 가극난(極難)이라
 걸가지 자빠진다
 새¹²³⁾ 빠지기 위우니라
 무릎 밑을 돌려 매소
 뒷 손질을 잘하여라
 남 부를 건 없건마는
 무삼 일을 알아 할까
 호미 자루 얼끗 놓고
 목집이¹²⁶⁾ 하겠고나
 농업자생(農業資生) 뿐일소나
 한태조(漢太祖)¹²⁷⁾는 천자 되네

육국정승(六國政丞) 인(印)을 차고
 종횡지술(縱橫之術)¹²⁸⁾ 그 아닌가
 팔년 풍진(八年風塵) 모사 되어
 운주유악(運籌帷幄)¹³⁰⁾ 그 아닌가
 남창걸인(南昌乞人) 대장(大將)이니
 호대도검(好帶刀劍) 그 아닌가
 구일 쏘던 유궁후예(有窮后羿)¹³⁴⁾
 삼치천금(三致千金) 도주공¹³⁵⁾은
 오고대부(五穀大夫) 백리해¹³⁷⁾는
 범아치구¹³⁸⁾ 왕량(王良)¹³⁹⁾이는
 세상 천하 어떤 장부(丈夫)
 나도 직업(職業) 있었으면
 소진(蘇秦) 장의(張儀) 종횡술¹⁴⁰⁾은
 활 모르고 칼 모르니
 수(數) 모르고 어(御) 모르니
 부귀(富貴)를 구(求)할진대
 천하광거(天下廣居) 넓은 집에
 수제치평(修齊治平) 그 아닌가
 과문(科文)¹⁴⁵⁾ 공부 전력 마소
 보가(保家) 하기 맘을 두소
 사롱공고(士農工賈) 사덕 중에
 수분독서(守分讀書)¹⁴⁶⁾ 선비 노릇
 백공(百工)의 바치질¹⁴⁸⁾은
 무천매귀(誣天魅鬼)¹⁵⁰⁾ 장사질은
 재사가의(再思加意)¹⁵¹⁾ 생각하니
 제집¹⁵²⁾ 들여 제 먹으니
 토지소출(土地所出) 다소간에
 혼자 심중(心中) 이 배포¹⁵⁴⁾를

행과낙양(行過洛陽) 하던 사람
 구별(口辨)으로 성공하고
 유후만호(留侯萬戶)¹²⁹⁾ 봉 하시니
 수(數)를 잘 두어 성공(成功)¹³¹⁾하고
 병법(兵法)에는 신선 이라¹³²⁾
 칼 잘 써서 성공하고¹³³⁾
 활 잘 쏘아 성공(成功)하고
 제연지책(計然之策)¹³⁶⁾ 성공하고
 소 잘 먹여 성공하고
 말 잘 몰아 성공하니
 직업 없이 성공할까
 옛 사람만 못할소나
 수칭오패(雖稱五霸)¹⁴¹⁾ 내사 싫고
 병가자류 소매(素昧)¹⁴²⁾하다
 신통육예(神通六藝)¹⁴³⁾ 못하였고
 집편지사(執鞭之士)¹⁴⁴⁾하잔말가
 성현(聖賢) 문정(門庭) 밟었으니
 차서(次序) 분명(分明) 바꿀서라
 의 평생(平生)이 절로 된다
 수신제가(修身齊家)거기 있다
 그 무엇을 하잔말가
 사신곡복(絲身穀腹)¹⁴⁷⁾ 할 길 없고
 배지¹⁴⁹⁾ 앓고 못하겠고
 돈 없어 못하겠고
 농사(農事)일이 제일이라
 모리지배(謀利之輩)와 다르니라
 용천인지(用天因地)¹⁵³⁾ 하였어라
 천지(天知) 신지(神知) 아지 로다

제 마음을 자책(自責)하여
 한 구억¹⁵⁵⁾에 찌여¹⁵⁶⁾서서
 유지자(唯知者)¹⁵⁸⁾가 몇몇 뭇까
 김생원(金生員) 박생원(朴生員)이
 처향(妻鄉) 따라 암퇴양반¹⁶⁰⁾
 피농부(彼農夫) 아농부(我農夫)라
 이일 저일 교拙(巧拙)간에
 한 번 가면 한번 오고
 궁불자존(窮不自存) 귀농(歸農)하니
 돈도 얻고 배[布]도 얻고
 삼복염천(三伏炎天) 더운 날에
 밭을 매려 들어서니
 매기 얼얼¹⁶⁴⁾ 바라구며¹⁶⁵⁾
 이튼 저튼 쫓자하니¹⁶⁶⁾
 왕개미는 무삼 심사(心想)
 우에서는 폭양(暴陽) 쪼고
 살이 배어 벗어지며
 가삼 어이 벌떡 벌떡
 어렵다고 밭 묵힐까
 콩을 심어 장 담으니
 참깨 들깨 기름 짜니
 목화 심어 많이 따면
 보리 될 제 불작시면
 밀과 보리 많이 하면
 논밭 지심¹⁷⁰⁾ 말물하고
 보리 밭에 쌓어 놓고
 읍여쌀 해콩 놓아
 날마다 낫질 하기

호미자루 도로쥐고
 귀막은 채 반편(半偏)¹⁵⁷⁾인 채
 어두귀면(魚頭鬼面)¹⁵⁹⁾ 총총이라
 저의 중의 존칭(尊稱)이요
 직함(職脚) 같이 불러 준다
 무삼 허물 있단말가
 풀아이¹⁶¹⁾를 하여보세
 경우 경계(境遇 經界) 잃지 마소
 역량(力量)인들 있을소나
 여수상관(與授相關)¹⁶²⁾ 밝게 하소
 논기심을 잊후¹⁶³⁾ 매고
 노루 피하여 범 만났다
 타도 앓는 쭉뚱리를
 자갈 뜬의 손 상하고
 이따금 침을 주고
 아래서는 훈기(薰氣) 올라
 땀이 흘러 옷이 젖고
 두통(頭痛) 홀연(忽然) 생겨난다
 각색(各色) 것이 다 나나니
 세간살이 대정(大定)이요¹⁶⁷⁾
 용용지물(庸用之物)¹⁶⁸⁾ 그 아닌가
 줄세의갈(卒歲衣褐)¹⁶⁹⁾ 거기 있다
 오줌 한번 헹눌세라
 삼하양식(三夏糧食) 되리르다
 논둑 배고 풀을 쳐서
 나물 갈로 들어선다
 밥맛 어이 그리 단고
 의복 신발 배(倍)가 많고

몸이 절로 파리¹⁷¹⁾하니
 왕왕(往往)이 구습(舊習)으로
 정소청풍(靜所淸風) 피음¹⁷³⁾속의
 하례등지¹⁷⁴⁾ 때를 마쳐
 송궁문(送窮文)¹⁷⁵⁾이 쓸데 없어
 전가작업근고중(田家作業勤苦中)의
 칠월칠석(七月七夕) 백중절¹⁷⁸⁾의
 월살고양(田殺羔羊)¹⁷⁹⁾ 안주 하고
 제피공당(躋彼公堂)¹⁸¹⁾ 올라 가서
 이바 증민(烝民) 백성(百姓)들이
 좌상공원(座上公員)¹⁸⁴⁾ 준비 찾아
 진유자(陳孺子)¹⁸⁵⁾이 낚실된고
 일배일배부일배(一杯一杯復一杯)라
 취증설화(醉中說話) 들어보면
 천자불용(天字不用)¹⁸⁷⁾ 우리 할멈
 장정(壯丁) 일네 자네 아들
 장하더라 자네 농사(農事)
 아무개는 쌀을 사고
 농담야설(農談野說) 듣자하니
 석양(夕陽)이 입려항(入閭巷)하니
 가가부득취인귀(家家扶得醉人歸)¹⁸⁹⁾라
 농부성회(農夫盛會) 그 아닌가
 팔월기확(八月其穫)¹⁹¹⁾ 벼를 베며
 시월납화(十月納禾)¹⁹³⁾ 벼들이고
 내적대창(乃積乃倉)¹⁹⁵⁾ 쌀을 적에
 농가년년추수후(農家年年秋收後)에
 집안 식구(食口) 생기복덕¹⁹⁶⁾
 일등무경(一等巫覡) 불러다가

일일마다 편할소나
 문방사우(文房四友)¹⁷²⁾ 생각난다
 음풍영월(吟風咏月) 좋을시고
 가색지간(稼穡之艱) 몰랐더니
 빈풍시(豳風詩)¹⁷⁶⁾를 외왔어라
 가일소요(暇日逍遙) 있었으니
 호미 씻고 잔치한다
 양차춘주(釀此春酒)¹⁸⁰⁾ 술 빚어라
 미수영년(眉壽永年)¹⁸²⁾ 빌어 보세
 강구동요(康衢童謠)¹⁸³⁾ 다시 들소
 상좌말석(上坐末席) 정좌(定坐)하고
 분육(分肉)하기 평균(平均)하소
 불취(不醉)능거든 가지 마소
 우순¹⁸⁶⁾ 말이 많아더라
 고초 밭도 아니 매네
 술 잘 먹고 일 잘 하네
 아무디는¹⁸⁸⁾ 잘되었네
 아무개는 송아지 샀네
 일무가청(一無可聽) 가소(可笑)로다
 호형호제(呼兄呼弟) 찾아간다
 포화리락(匏花籬落)¹⁹⁰⁾ 흩어지니
 함포고복(含飽叩腹) 즐겨서라
 구월축장(九月築場)¹⁹²⁾ 마당 쌓고
 시월적장(十月滌場)¹⁹⁴⁾ 타작한다
 제수조(祭需條)로 별(別)로 두소
 고래지풍(古來之風) 이었으니
 길월영진(吉月令辰) 백일(擇日)하여
 천조(天祖)에게 제사한다

찬떡 치고 배떡 치고
 탕수채소(湯水菜蔬) 다 차리고
 맛 좋은 무와대기¹⁹⁸⁾
 당산(堂山)²⁰⁰⁾이요 조왕²⁰¹⁾이요
 손 부비며²⁰²⁾ 비는 말이
 양반은 제사덕(祭祀德)을 입고
 모년 모월 모씨 가중(家中)
 일년 삼백 육십일에
 아무 대주(大主) 아무 제주(祭主)
 이 가중(家中)의 내년 농사(農事)
 명에²⁰⁹⁾ 노적(露積) 쌀 노적을
 일주일야(一晝一夜) 축원 후에
 귀농(歸農) 하온 저 선비야
 농사(農事)라고 지은 것이
 도지(賭地)²¹¹⁾ 주고 장리²¹²⁾ 잡고
 분복(分福)²¹⁴⁾을 어찌하리
 규모(規模) 없다 호령하니
 죽을 수고 밥을 마오
 이해교계(利害較計)²¹⁶⁾ 아니오라
 가련할사 궁가(窮家) 부인(婦人)
 집신 한 짝 목신²¹⁷⁾ 한 짝
 출무완군(出無完裙)²¹⁸⁾ 흰 의상의
 경대(鏡臺) 체경(體鏡) 연지분은
 방직치포(紡績治圃)²²⁰⁾ 때를 좇아
 군자(君子) 뜻을 순(順)응게 하여
 무시무비(無是無非)²²¹⁾ 여자 되어
 군자 고궁(固窮)²²²⁾ 성인 말씀
 유미면위향인(猶未免鄉人)²²³⁾ 되기

밝은 술과 막걸리며
 소지(燒紙)¹⁹⁷⁾ 종이 한 권 놓고
 용배기로¹⁹⁹⁾ 고아놓고
 정도 치고 장구 치며
 각색(各色) 덕담(德談)²⁰³⁾ 한강할계
 상인은 조신덕²⁰⁴⁾을 입사오니
 지성발원(至誠發願) 하나이다
 곳불²⁰⁵⁾ 행불²⁰⁶⁾ 없게 하오
 아들 낳게 점지(點指)²⁰⁷⁾ 하오
 승종석출(升種石出)²⁰⁸⁾ 점지 하오
 앞에 뒤에 점지(點指)하오
 전곡(錢穀) 한 짐 지어간다
 도신(禱神)인들 하여볼까
 추무담석(秋無擔石)²¹⁰⁾ 가련하다
 왕세(王稅)²¹³⁾ 거리 턱이 없다
 만만한게 마누라라
 연지말막[軟地插抹]²¹⁵⁾ 그 아닌가
 악식(惡食)이 수치(羞恥)될까
 세간살이 규모모다
 모양을 보단말가
 절룩발이 절로 되고
 정구지역(井臼之役)²¹⁹⁾ 골똥 하다
 신혼시(新婚時)에 구경하고
 군자(君子) 수고(手苦) 나눠하면
 은근(殷勤)히 이른 말씀
 장부(丈夫) 일을 모르오나
 응당 먼저 아오리다
 그 아니 근심이요

도성입덕²²⁴⁾ 주렴계(周濂溪)²²⁵⁾는
 유현종사(儒賢從事) 범문정공²²⁷⁾
 평정하던 한문공(韓文公)²²⁸⁾은
 대장부(大丈夫) 평생(平生) 일이
 기한(飢寒)을 못참아서
 잠영세가(簪纓世家)²²⁹⁾ 자손으로
 붓대 잡던 고운 손길
 관옥(冠玉)²³²⁾ 같은 고운 얼굴
 의관정제(衣冠整齊)²³³⁾ 하던 몸의
 약불승의(若不勝衣) 연연약졸²³⁵⁾
 어깨 어이 높아지고
 기한(飢寒) 성염(盛炎) 풍우중의
 장삼이사(張三李四)²³⁶⁾ 짝을 지어
 문방제구(文房諸具) 얻다²³⁷⁾ 두고
 익자삼우(益者三友)²³⁸⁾ 문사들이
 마오 마오 천역(賤役) 마오
 서서백가(詩書百家) 심을 써서
 부모를 영양(榮養) 하면²⁴⁰⁾
 이말 들코 이른 말이
 언척시야(言則是也) 옮겨니와
 첩피오작(瞻彼烏鵲)²⁴³⁾ 금조로서
 악한 짐생 호랑이도
 하물며 인생 되어
 과환(科宦)²⁴⁵⁾으로 영친(榮親)을고자
 노친(老親)이 날 기르니
 영친(榮親)되기 구하다가
 저리 영친(榮親) 어렵기와
 어느 편이 당연(當然) 할까

창초불제(窓草不除)²²⁶⁾ 글만 읽고
 글 읽을 제 죽을 것고
 일대문장(一人文章) 되었으니
 학문(學文) 밖에 더 있을까
 농가자류(農家者流) 되단말가
 영사(寧死)언정²³⁰⁾ 농부 되어
 호미목이²³¹⁾ 웬일인요
 철색(鐵色) 같이 검어지고
 봉두난발(蓬頭亂髮)²³⁴⁾ 차마 할까
 고된 짐을 많이 지니
 등은 어이 굽어지나
 진날 깨날 가리잡고
 오락가락 보기 싫소
 장기 농기 치장하오
 과문불입(過門不入)²³⁹⁾ 하오리다
 포식난의(飽食暖衣) 내사 싫소
 입신양명(立身揚名) 하온 후의
 대장부(大丈夫) 그 아닐까
 군언(君言)이 역부가(亦不可)²⁴¹⁾라
 미달일간(未達一間)²⁴²⁾ 들어보오
 반포(反哺)²⁴⁴⁾ 할 줄 능히 알고
 부자지친(父子之親)알았으니
 금수(禽獸) 만도 못할소나
 울울궁연(兀兀窮研)²⁴⁶⁾ 글만 하면
 나는 양친(養親) 언제 할까
 욕친(辱親)이 되오리라
 이리 양친(養親) 급하기와
 당연(當然) 도리(道理) 좇아 하세

용천인지(用天因地) 이양부모²⁴⁷⁾
 슬프다 시속(時俗) 사람
 불문불무(不文不武)²⁴⁸⁾ 벗어나서
 무항심²⁴⁹⁾ 무항산(無恒産)²⁵⁰⁾하고
 영사(寧死)언정 남아(男兒)되야
 조상(祖上) 세업(世業) 다 바리고
 성경현전(聖經賢傳) 제 알소나
 도덕문장(道德文章) 소래(素昧)하니
 배 부르고 등 더우니
 농부(農夫) 되야 이말 듣기
 시례충효(詩禮忠孝) 가정지훈
 남의 치소(嗤笑)²⁵²⁾ 면할소나
 피일시(彼一時) 차일시(此一時)라
 객인즉명(賁人則明)²⁵³⁾ 남의 시비
 농부(農夫) 비소(誹笑)하는 사람
 외화(外華)²⁵⁵⁾로만 볼작시면
 면말(綿織) 보신 흑데기를²⁵⁷⁾
 왜증(倭纒)²⁵⁸⁾이며 곱생초²⁵⁹⁾를
 진홍당선(眞紅唐扇)²⁶¹⁾ 곱장선을²⁶²⁾
 농시(農時)를 헤아릴까
 색주가(色酒家)이 어대매요
 박력장중(博奕場中)²⁶⁵⁾ 높은 벼이
 저의 집의 가솔(家率)²⁶⁷⁾들은
 가솔인들 밥을 보며
 세상 천지 못할 일운
 동시 설달 설한풍(雪寒風)의
 열양(兩)이요 닷 양(兩) 이요
 자신지책(資身之策)²⁷⁰⁾ 없었으니

성인지효(聖人之孝) 그 아닌가
 농업(農業) 자생(養生) 천히 여겨
 무슨 영위(營爲) 하려는지
 농부(農夫) 흉을 매양 본다
 농토한(農土漢)이 되단말가
 목구멍만 아단 말가
 지게목발 두드린다²⁵¹⁾
 농가자류(農家者流) 마땅하다
 그 밖에야 제 알소나
 그 아니 분괴(憤愧)할까
 내 손의 와 추락(墜落)하니
 내 마음에 절통(切痛)하다
 재사가의(再思加意) 생각하니
 사람보아 취신(取信)하세
 제 행사(行勢)²⁵⁴⁾를 살펴보니
 형세보²⁵⁶⁾에 빠질소나
 배 물으면 갈아 입고
 철새²⁶⁰⁾ 맞춰 갈아 입고
 새양²⁶³⁾빛을 채면²⁶⁴⁾ 한다
 이상 한데 찾아 간다
 청루방(靑樓房)이 저기 있다
 요대만전(腰帶萬錢)²⁶⁶⁾ 풍을시고
 농부(農夫)만이나 하단말가
 저울²⁶⁸⁾인들 옷을 볼까
 노름군의 처자 노름
 나무 한 못[東]²⁶⁹⁾ 있을소나
 밧받으러 늘어섰다
 수신제가(修身齊家) 하단말가

이 사람의 농부(農夫) 비소(誹笑)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구궁지책(救窮之策)²⁷³ 생각하니
 천불궁역색가(天不窮力穡家)²⁷⁴라
 소평(小坪)²⁷⁵의 외도 놓고
 먹지 말고 돈을 사면
 상마우로전평천²⁷⁸에
 위치위격(爲絺爲紵)²⁷⁹ 옷을 지어
 닭 개 돌을 실시(失時) 마소
 한 자 배 한 피 곡식
 한술 밥과 한 잔 술도
 한 푼 두 푼 남용(濫用) 마소
 나의 힘을 남 비이고
 농사할 때 아니라도
 밤에 누어 잠들기 전
 오늘 할 일 믿지 말고
 선후(先後)완급(緩急) 때를 맞춰
 하로 출입 백해(百害)된다
 목수초동(木豎草童) 벗이로다
 애경상문(哀慶相問)²⁸⁴ 전폐하니
 방공해사(妨公害事) 어이 할까
 폐의파관(弊衣破冠) 고이 하다
 사람마다 하울소냐
 시중소관²⁸⁷ 긴(緊) 할시고
 가사범절(家事凡節) 낫다 한들
 그 아니 한심할까
 기질이 별다른까
 고인(古人) 서책(書冊) 보자하니

질통(切痛)할 것 예²⁷⁷ 있으리
 여풍과이(如風過耳)²⁷² 던져두고
 농사밖에 또 있는가
 역색(力穡)을 하여서라
 발해²⁷⁵의 줄도 심어
 가간일용(家間日用)²⁷⁷ 되나니라
 상목(桑木) 심고 삼을 잘면
 구월수의(九月授衣)²⁸⁰ 돈이 들까
 노친(老親) 봉양(奉養) 찬물된다
 생겨날 곳 힘이 들고
 공(空)이 줄이 없나니라
 에서²⁸¹ 절로 생겨날까
 남의 힘을 믿지 마소
 경영배포(經營排布)²⁸² 농사로다
 내일 할 일 생각하소
 내일 할 일 생겨나리
 두미차서(頭尾次序) 알아하소
 술벗 글벗 멀어지고
 폐출입(廢出入)²⁸³ 절로 되여
 일가(一家) 친구 득담²⁸⁵ 한들
 모인 중에 가자 해도
 의폐온포 입불치²⁸⁶를
 이따금 큰 출입(出入)은
 이터 그러 지내가니
 선세유업(先世遺業) 추락(墜落)하니
 야귀이독고인서²⁸⁸는
 송등불²⁸⁹ 도도 놓고
 두 석 장을 못 보아서

뚝뚝 잠을 못 이긴다
 기질(氣質) 부족(不足) 어이하리
 하룻동독(夏農冬讀) 하여보세
 농사(農事)의 낭패(狼狽) 되고
 글자상의 돈망(頓忘)²⁹⁰이라
 시인 글귀 명작이요
 그 아니 격담(格談)²⁹³ 인가
 저리 가도 부지런 근(勤)자
 백사성공(百事成功) 여기 있다
 안 규모(規模)²⁹⁴ 경제하소
 부자라도 탕패(蕩敗)²⁹⁵하리
 양식을 정히 먹고
 양식 먹기 험히 한다
 쌀을 주고 반찬 사며
 무당 불러 비손하기²⁹⁷
 이리 궁글 저리 궁글
 이러하면 지낼소냐
 외정(外庭)²⁹⁹ 처분 믿어두고
 우수(仇讎)³⁰¹ 같이 멀리 보고
 주린 사람 적선하고
 대중하여 밥쌀 내소
 일흠(一畝)³⁰² 일사³⁰³ 허비할까
 남의 빚을 적게 지리
 절식(節食)하면 계량(繼糧)되고
 사 입자면 적지 않다
 먹기 입기 제일이라
 잘 입자면 한이 없다
 식취충부³⁰⁷양(量) 채기라³⁰⁶

책을 덮고 자만하니
 주경야독(晝耕夜讀) 글자고쳐
 글자만 잠심(潛心) 하면
 농사(農事)에만 골몰하면
 어경어독폐일남²⁹¹은
 일근천하무난사²⁹²는
 이리 가도 부지런 근(勤)자
 부지런 근자 놓지 마소
 가빈(家貧)에 사현처(思賢妻)라
 양식(糧食) 먹기 해피²⁹⁵하면
 성가(成家) 하는 부인(婦人)에는
 패가(敗家) 하는 부인네는
 쌀을 주고 떡사 먹기
 부처에게 불공(佛供)하고
 살강²⁹⁸ 밭에 선 밤당이
 천만석(千萬石)이 쌓였은들
 반찬 사기 기명(器皿) 사기
 부처 불공 무당 비손³⁰⁰
 먹던 밥이 남았거든
 집안 식구 객식구(客食口)를
 노심 노력 지은 농사
 절식(節食) 절용(節用) 하고 보면
 일년 농사 적다 하되
 일년 길삼 적이³⁰⁴ 해도
 세간살이 대절목(大節目)³⁰⁵이
 잘 먹자면 한이 없고
 의취폐체(衣取蔽體)³⁰⁶ 몸가리고
 그 밖에야 더 구할까

제 분수(分數) 넘어가리
 그 아니 두려울까
 내 분수(分數)를 따라 하소
 겨울에는 보병의(步兵衣)³¹⁰라
 제 분수에 지내 갈까
 겨울에는 소사(蔬食) 채경(菜羹)
 가색지간(稼穡之艱) 알이로다
 토품의토(土品宜土)³¹¹ 상보이라
 밭뒤 논외 찰벼 하소
 물수자[水]가 제일이요
 자주빈[頻]자 제일이요
 급할 급[急]자 제일이요
 먼저선(先)자 제일이요
 지휘지(指)자 제일이요
 깊을 심(深)자 제일이요
 미리예(豫)자 제일이요
 술 주자(酒)자가 제일이요
 비우(雨)자를 잊지 말고
 가물 한(旱)자 잊지 마소
 비가 먼저 오나니라
 날이 먼저 개나니라
 비 올적에 두레³¹⁶ 치장
 태천미우(迨天未雨)³¹⁸ 하여서라
 천시(天時) 오기 기다리소
 명년(明年) 풍흉(豐凶) 짐작한다
 대강 징험(徵驗) 하나니라
 내년 풍징(豐徵) 그 아닌가
 수지다소(數之多少) 세어 보소

궁사(窮士)³⁰⁹ 남의(襤衣) 소인 되기
 악의악식(惡衣惡食) 수치(羞耻) 말고
 여름에는 마포의(麻布衣)와
 농부(農夫) 몸이 되어서라
 여름에는 맥반종탕(麥飯蔥湯)
 조반석죽(朝飯夕粥) 이어갈제
 농사하기 급선무(急先務)는
 전논³¹²에는 늦벼 하고
 이 논 저 논 호부없이³¹³
 이들 저들 감농(監農)하기
 춘경추확(春耕秋獲) 때 맞추기
 동작서성(東作西成) 일 나갈제
 많은 일군 일 불이기
 심경이누(深耕易耨) 가래질은³¹⁴
 농기(農器) 연장 단속하기
 망로(忘勞)³¹⁵하고 힘 돌우기
 날 가물 제 일 하기는
 장마 중의 일할 제도
 가물 할 일 못다하여
 장마 할 일 못다하야
 가물적에 우장(雨裝) 단속
 임갈굴정(臨渴掘井)³¹⁷ 부디 말고
 인사(人事) 먼저 닦아 놓고
 울³¹⁹의 절후(節候) 조만간의
 일일이 맞것느냐
 납평(臘平)³²⁰눈이 세번 오면
 설날 밤에 닭의 소리
 많이 올면 연풍(年豐)이요

적이 울면 연흉(年凶)이라
 풍징(豐徵)이 그 아니며
 선후(先後)를 들어보소
 오작 선명(烏鵲先鳴) 풍징이라
 수한재(水旱災)를 다 보나니
 붉었으면 한징(旱徵)이라
 큰 풍년(豐年)이 들리로다
 풍징(豐徵)이라 할 것이요
 백곡결실(百穀結實) 못하리라
 나시³²⁴⁾나물 많이 나고
 쭉 나물이 많이 난다
 흉년(凶年) 들까 대기(大忌)로다
 갈 서리 물러가고
 적지천리(赤地千里)³²⁶⁾ 되리로다
 집에 들제 배를 타고
 곡식 머리 뿔이 나고
 우마동사(牛馬凍死) 하리로다
 봄 가뭄이 있으리라
 여름 한재(旱災) 어데 갈까
 늦벼 모를 많이 심고
 이른 벼를 많이 심소
 상강(霜降)³³¹⁾ 후에 서리오고
 상강(霜降) 전의 서리 온다
 혹중혹부(或中或否) 다 믿을까
 실농부(實農夫)³³²⁾를 따라 하소
 실시(失時) 마소 실농(失農) 하리
 저 일에도 때시(時)자라
 성인(聖人) 시증³³³⁾ 날 속일까

곡일(穀日)³²¹⁾이 청명(清明)하면
 설날 새벽 금조(禽鳥) 소리
 참새 소리 흉징(凶徵)이오
 상원(上元)³²²⁾ 밤에 망월(望月)해야
 빛이 희면 물이 지고
 원만(圓滿)하고 황흑(黃黑)하면
 이월(二月) 묘일(卯日) 셋이들면
 춘분(春分)³²³⁾ 날이 청명(清明)하면
 올 풍년(豐年)이 들러하면
 올 흉년(凶年)이 들러 하면
 쥐가 많고 두연새 울면
 봄 서리가 늦이 오면
 춘상갑(春上甲)³²⁵⁾에 비가 오면
 하상갑(夏上甲)³²⁷⁾에 비가 오면
 추상갑(秋上甲)³²⁸⁾에 비가 오면
 동상갑(冬上甲)³²⁹⁾에 비가 오면
 겨울 장마 지고 보면
 봄에 장마 심히 지면
 절후(節候)³³⁰⁾가 이르거든
 절후(節候) 든 게 늦었거든
 절후(節候)가 일찍 들면
 절후(節候) 늦이 들면
 대강 징험(徵驗) 그러하나
 책력(冊歷) 절후(節候) 묻지말고
 잘고 심고 심고 매기
 이 일에도 때시(時)자요
 때시(時)자를 잊지마소
 삼황오제(三皇五帝)³³⁴⁾이룬 발을

우탕문무(禹湯文武)³³⁵⁾ 같으시고
 안·증·사·맹³³⁸⁾ 되셨으니
 주·장·정·주³³⁹⁾ 추수(秋收) 후에
 뉘가 다시 알아볼까
 장기 대정 사람 없다
 증덕(種德)할 이 그 뉘시오
 구역경계(九域境界) 다 잃었다
 어데가서 물어볼까
 불변선원(不辨仙源)³⁴³⁾ 뉘 찾을까
 연파조수(烟波鳥獸) 숨어 있고
 유비군자(有斐君子)³⁴⁴⁾ 뉘 실린고
 양존사(羊尊師?)³⁴⁵⁾ 를 찾아볼까
 농상석경(隴上釋耕)³⁴⁶⁾ 뉘 벗인가
 영천수(潁川水)³⁴⁷⁾ 어데메요
 근래 세상 못보겠고
 치전자양(治田自養)³⁴⁹⁾ 하여 볼까
 평질동작(平秩東作)³⁵⁰⁾ 왕래할제
 좋은 말만 들을소냐
 좋은 일만 보일소냐
 저리 가도 참을인(忍)자
 뉘칠 회(悔)자 생겨나리
 시인(詩人) 글귀 명작(名作)이라
 위가우전(爲家于田)³⁵²⁾ 하여서라
 작지불이성군자³⁵³⁾라
 소부재근(小富在勤) 헛말일까
 남전북토(南田北土) 뉘가살까
 남과 같이 하여서라
 지성(至誠) 지경(至敬) 다르려라

주공(周公)³³⁶⁾ 공자³³⁷⁾ 심으시고
 어와 이 밭이야
 무에불치(蕪穢不治)³⁴⁰⁾ 남은 밭을
 소와 장기 종진마는
 오품종자(五穀種子) 종진마는
 정전법(井田法)³⁴¹⁾을 뉘가 알까
 기로(岐路)에서 방황(彷徨)하니
 물외전원주진촌³⁴²⁾
 모향노중(暮向蘆中) 갈대 밭은
 위수녹죽천묘전(渭水綠竹千畝田)은
 백운심처채약포(白雲深處菜藥圃)에
 편안 안(安)자 자손 주니
 소 이끌고 물 먹이니
 정전시현 장선생(張先生)³⁴⁸⁾도
 여기 지기 가지말고
 목수초동(木豎樵童) 벗이되야
 날이 새면 듣난 말이
 날이 새면 보는 일이
 이리 가도 참을인(忍)자
 참을인(忍)자 놓지마소
 백인당중(百忍堂中) 유대화는
 번지학가(樊遲學稼)³⁵¹⁾ 누타 말고
 일년 이년 백년 가도
 구궁지책(救窮之策) 놓지 마소
 여전여곡(餘錢餘穀) 빛을 주니
 앙사부모(仰事父母) 부육처자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을
 시제³⁵⁴⁾ 기제³⁵⁵⁾ 절일 다례³⁵⁶⁾

한 번인들 궐향(闕享)³⁵⁷할까
 조상 신령(神靈) 흠향(歆享)³⁵⁸할까
 자손(子孫) 향복³⁶⁰ 받을소냐
 어별(魚鱸)³⁶²에게 제사(祭祀)하고
 최작(佳雀)³⁶⁴에게 제사하니
 저는 근본(根本) 모를소냐
 제기(祭器)³⁶⁶부터 먼저 사고
 제수미(祭需米)³⁶⁷물 별로 두소
 노친(老親) 봉양(奉養) 일을 삼아
 비백불난(非帛不暖) 명주 옷을
 양지(義志)³⁷⁰ 이자(二字) 잇을서라
 칠십식육(七十食肉)³⁷² 그 아닌가
 오십의백(五十衣帛)³⁷⁴ 되리로다
 장자거철(長者車轍)³⁷⁵ 문에 많다
 가객소요(歌客逍遙) 좋을시고
 팽양포고(烹羊炮羔)³⁷⁹ 술을 빚어
 불취무귀(不醉無歸)³⁸⁰ 네 아느냐
 두주(斗酒) 자로 즐겨서라
 知足안분(知足安分)³⁸³ 하여서라
 후생(後生) 교육(教育) 힘써 하소
 자질근계(子侄昆季)³⁸⁴ 친구 자식
 교불권(教不倦)³⁸⁵ 하여 불까
 부모형제(父母兄弟) 무고하다
 덕행(德行)으로 근본(根本)삼소
 저녁에는 혼정(昏定)이라
 입효출공(入孝出恭) 예의 엄치
 원방(遠方) 벗이 찾아온다
 팔삼 잠깐 들어 보오

자손(子孫) 정성(精誠) 없사오면
 보본지익(報本之義)³⁵⁹ 모르오면
 수달피³⁶¹는 보본(報本)하여
 새매도³⁶³ 보본(報本) 할 줄 알아
 하물며 인생 되야
 기명(器皿)³⁶⁵을 작만할 제
 추수동장(秋收冬藏) 입고(人庫)할제
 갈력경전(竭力耕田) 자식노릇
 비육불포(非肉不飽) 육미불이³⁶⁸
 성품(性稟)³⁶⁹ 맞게 공양할 제
 계돈구채(雞豚狗彘)³⁷¹ 질시 마소
 수지이상(樹之以桑)³⁷³ 누에 치면
 친구(親舊) 종족(宗族) 찾아오니
 공곡생추(空谷生蕪)³⁷⁶ 백구³⁷⁷매나
 세시복납(歲時伏臘)³⁷⁸ 좋은 때에
 사린노소(四隣老少) 다 불러라
 분읍사(粉邑社)³⁸¹ 옛두레³⁸²에
 거적풍족(巨積豐足) 생각말고
 조반석죽(朝飯夕粥) 할만하면
 작은 사랑 너른 방에
 십여인씩 모아 두고
 영제교육 삼락(三樂)³⁸⁶ 중에
 여력학문(餘力學文)³⁸⁷ 성훈 받아
 계명초(雞鳴初)에 신성(晨省)하고
 애소옹대 진퇴지절(進退之節)³⁸⁸
 순도(諄導)³⁸⁹ 규구³⁹⁰ 가르치니
 농부귀어옥중(農夫歸於屋中)하니
 삼대여빈 출엄(出閤)³⁹¹ 하기

불염조강(不厭糟糠)³⁹²⁾ 고생 중 너니
 전(前) 모양과 어덜던고
 정구지역(井臼之役)³⁹⁵⁾ 대로 잇고
 큰 방 문안(問安) 일을 삼고
 접빈객(接賓客)의 바삐 간검³⁹⁸⁾
 규문정정(閨門井井)⁴⁰⁰⁾ 거룩하다
 종덕(種德) 하기 일을 삼아
 빛은 사람 옷도 주며
 면궁(免窮) 할 께 네 아난다.
 농사밖에 없나니라
 자고제왕(自古帝王) 중(重)히 안다
 황후친잠(皇后親蠶) 가르치니
 무본(務本) 식력⁴⁰²⁾ 못할소냐
 절식절용(節食節用) 부디 하소
 무소불위(無所不爲) 가의(可提)로다
 매양 농부(農夫) 천대(澣待) 한다
 농부 천대 부디 마소
 나라 종묘(宗廟) 어찌 하며
 군자(君子)를 기를 소냐
 중언부언(重言復言) 바라노라

오날 모양 불작서면
 치포방적³⁹³⁾ 괴론³⁹⁴⁾ 일과
 문하식음(問何食飲) 문기거³⁹⁶⁾는
 예상조전(禮相助奠)³⁹⁷⁾ 제수 차림
 주사시의(酒食是儀)³⁹⁹⁾ 하였으니
 위자손계(爲子孫計) 무얼 하나
 주린 사람 밥도 주고
 은근(慇懃) 진정(鍊情) 이른 말이
 다른 께는 별로 없고
 천하대본(天下大本) 그 아닌가
 천자적전(天子籍田)⁴⁰¹⁾ 권롱이요
 하물며 백성 되어
 규모(規模) 없이 못 사나니
 기한도골(飢寒到骨) 염치불고
 근래(近來) 시대(時態) 야속하여
 만세(萬歲) 만세(萬歲) 창생 들어
 屆일 농부 없사오면
 초야(草野) 야인(野人) 없사오면
 야인 군자(君子) 상자⁴⁰³⁾ 되기

〈註 解〉

- 1)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파다. 우(禹) 임금이 요(堯) 임금 때 시작했던 치수(治水)사업을 완성했다는 데서 온 말 <史略卷 1>
- 2) 순(舜) 임금이 밭을 갈던 곳.
- 3) 순 임금의 아버지 고수(瞽瞍)가 후처에 빠져서 순을 늘 죽이려고 했으나 효성을 다하여 낚아채게 했다는 데서 온 말
- 4) 우공(禹貢)이 토지 등급을 9등을 정함
상지상(上之上) 중지상(中之上) 하지상(下之上) 상지중(上之中) 중지중(中之中) 하지중(下之中) 상지하(上之下) 중지하(中之下) 하지하(下之下)
- 5) 은(殷)나라 탕(湯) 임금 때 7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탕임금이 상야(桑野)에서 희생(犧牲)을 고자 하니 곧 큰비가 내렸다는 이야기에서 온 <史略卷 1>
- 6) 주(周)나라 문왕(文王) 때에 있었던 우(虞)와 예(芮)의 옛날송사(訟事). ‘虞芮爭田不能決 乃如周入界. 見耕者 皆遜畔 民俗皆讓長 二人歎 相謂曰 吾所爭 周人所耻…><史略卷 1>
- 7) 주공(周公)이 지었다고 전하는 시경 빈풍(邶風) 칠월장(七月章)을 말한다.
주로 농사관계의 민요임 주 우리나라의 농가 월령가적 성격을 가졌다.
- 8) 논어(論語)에서 따온 말.
○子曰 君子謀道 不謀食. 耕也餒在其中 學也祿在其中矣 <論語. 衛靈>
- 9) 논어(論語)에서 따온 말.
子曰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 <論語. 雍也>
- 10) 맹자(孟子) 卷1. 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 상(上)에 나오는 말. 항산(恒産). 항심(恒心)을 논하는데 있음.
- 11) 정호(程顥). 정이(程頤) 형제를 말함.
- 12) 주희(朱熹)를 말함.
- 13) 정자(程子)의 본관(本貫) 즉 정자를 가리킴
- 14) 주자(朱子)의 본관(本貫) 즉 주자를 가리킴
- 15) 예(禮)의 호미르씨.
- 16) 중국 북송(北宋)의 유학자 주敦이(周敦頤)의 호.
- 17) 중국 북송 때의 대유(大儒) 정호(程顥)의 호.
- 18) 중국 남송 때의 대유학자(大儒學者) 주희(朱熹)의 호.
- 19) 닳아 옴면 부지런하게.
- 20) 너의 씨앗을 마음의밭에 심다.
- 21) 초매(草昧)한 시기의 사람. 초매는 천지가 개벽하는 어두운 세상.
- 22) 중국 고대의 3 황제의 한 사람, 현실적 인물로 복희씨 이전의 사람인데 분의 기술을 가르쳤고 식분(食物)의 조리법을 전했다고 함
- 23) 중국 고대의 제왕. 8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어림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창조의 신으로 알려짐.
- 24) 상고(上古)의 제왕 이름. 복희씨의 동모매(同母妹).
- 25) 아악(雅樂)에 쓰는 악기의 하나
- 26) 황제(黃帝)의 이름. 그가 현원(軒轅)의 언덕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름.
- 27) 통하지 못하던 것을 주차(舟車)로써 통하게 하다.
“…爲文章 以表貴賤 作舟車 以濟不通…” <史略卷 1>
- 28) 중국 상고의 제왕인 열제(炎帝).
“以火德王 故號炎帝 始教耕. 故又號 神農民也” <史略卷 1>

- 29) 전원(田園). 전사(田舍) 빈간(民間)을 뜻함. 여기서는 堯를 말함
 “帝(堯)使其九男二女 百官·牛羊·倉廩備 以事舜於畎畝之中. 〈孟子萬章·上〉
- 30) 중국 주(周) 나라의 선조. 농사일을 잘 다스린다는 소문을 듣고 순임금이 후직(后稷)의 관(官)에 임명했음.
- 31) 이윤(伊尹)이 농사를 지었다는 곳
- 32) 중국 고대 전설상의 인물. 상(商) 나라의 명상(名相)
- 33) 장저(長沮) 결너(桀溺)은 전국시대의 은사(隱者). 논어(論語) 미자(微子)로 참조.
- 34) 후한(後漢)때 부춘산(富春山)에 숨어 살던 엄광(嚴光). 자(字)는 자릉(子陵)임.
- 35) 제갈량(諸葛亮)을 말함. 와룡(臥龍)은 창차 풍운조화(風雲造化)를 일으킨 야(野)에 숨은 큰 영웅(英雄)을 일컫는 말.
- 36)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일부.
- 37) 진(晉)나라 때 전원시인(田園詩人) 도잠(陶潛)
- 38) (밭을 매다가) 호미 끝에 황금(黃金)이 나왔어도 돌아보지 아니함.
- 39) 삼국시대 위(魏)나라 주허(朱虛) 사람. 한말(漢末) 황건적의 난 때 요동에 피난하여 살았음
 “寧小時 與華歆 爲友 嘗與歆共鋤菜 見地有金, 寧揮鋤不顧 與瓦石無異. 歆捉而擲之 人以是知其優劣. 〈通鑑卷 7〉
- 40) 당(唐)나라 때 은인(隱人) 한퇴지(韓退之)의 동생행(董生行)에 ‘嗟哉董生朝出耕 夜歸讀書古人書. 란’ 句가 있음. 〈小學卷 6〉 *註(340)을 보라.
- 41) 王蠋 魯邑人. 忠臣不更二君. 樂毅封墓. 〈史要聚選 卷 4〉
- 42) 몸소 밭을 갈면서 예의를 중히 여김
- 43) 밤에는 새끼꼬다. 시경(詩經) 민풍(邠風) 칠월(七月)에 나오는 말.
- 44) 집을 새로 이는 것.
- 45) 길가이나 산에 버려진 개똥 따위를 주워 거름으로 썼다.
- 46) 서쪽 집에서 수수를 밭에 쪼다.
- 47) 소의 오줌과 똥.
- 48) 성의를 가지고 다정하게 대하는 모양
- 49) 허리를 굽히며 매우 고맙다고 함
- 50) 매우 실한 농우(農牛)
- 51) 들 짐승을 가져간다는 뜻 시경(詩經) 민풍(邠風) 칠월(七月)에 “同我婦子 饁彼南畝 田畯至囂”라고 있음
- 52)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뜻으로, 공교롭게 일이 방해됨을 이르는 말. 황희(黃喜) 정승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전함.
- 53) 모심기를 할 수 있게 운 비.
- 54) 위에 오는 여리가지 사정.
- 55) 열물
- 56) 익숙한 손씨
- 57) 배우는 일
- 58) 원기가 회복됨
- 59) 밭과 보리
- 60) 집 근처 채소밭에 파당을 텅다
- 61) 햇볕을 쬐다.
- 62) 농부들이 일할 때 쓰는 짓갓.
- 63) 도롱이

- 64) 농부들이 일할 때 입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짧은 집방이. 독비근(犢鼻褌)
- 65) 네나무에다가 오색 형질을 달고 거기다가 음식을 놓고 걸러며 노는 장소에 푸른 광대기.
- 66) 메나리
- 67) 앞에 가면서 선노래 부르는 사람?
- 68), 69) 비를 우리 공전(公田)에도 내려주시고 우리 사전(私田)에도 내려준다는 뜻. 시경(詩經) 소아(小雅) 대천(大田)에 ‘…有澆萋萋 興雨祁祁. 雨我公田 遂及我私…’
- 70) 풍년이 들어서 농부들이 태평(太平)한 세월을 부르는 노래. 중국 요임금 때 하늘은 농부가 태평한 생활을 즐기려하여 격양(擊壤)하면서 부른 노래. 그 노래는 “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于我何有哉”임.
- 71) 타야기의 한가지.
- 72) 짙에는 다만 네 벽뿐.
- 73) 당하면 생존할 수 없음.
- 74) 조상이 끼쳐준 업에 종사함.
- 75) 선산(先山)
- 76) 이조때 생원(生員) 진사(進士)를 뽑는 과거. 사마시(司馬試), 소과(小科).
- 77) 증광(增廣) 별시(別試) 때에 내린 안 마당에서 모이는 과거.
- 78) 망(榜)에 이름이 걸리다.
- 79) 숙제한 걸가며, 굶주린 이가.
- 80) 년을 연(年) 월(月) 일(日) 시(時)의 간지(干支) 8자.
- 81) 유희한 사람이 유가(遊街)할 때나 새로임관하여 도입할 때 앞에서 불끄가는 관 음악.
- 82) 락님, 제귀종들이 서로 주대하며 부르는말, 여자의 수종을 보는 여종.
- 83) 한은 벼슬아치 밑에서 분부대도 수종하여 일을 보는 사람들.
- 84) 권에 있는 대가(大家)의 식객(食客).
- 85) 장도 아니고 속도 아닌, 여기도 못미치고 저기도 미칠 수 없음.
- 86) 유숙(留宿)하다
- 87) 행정(行程)을 물리다.
- 88) 착달마다 마음 속에 각각 셈속과 문벌터이 있음을 이룸.
- 89) 문에 못이져 찬을 차다.
- 90) 과거에 낙방할 사람
- 91) 저들 심하게 버다? 고어(古語)에 강렬하다 더해지다는 뜻으로 ‘코붓지다’가 있음.
- 92) 부끄러다.
- 93) ‘한 흙망의 농사. 흙’은 망 넓이풀 나타내는 하나치로 평(坪)의 하위단위.
- 94) 가난하여 가을에 수확이 없음. 단석(擔石)은 주(周)나라 때 곡식을 계산하는 하나치.
- 95) 알고 주니
- 96) 경황(景況)
- 97) 날로 소양 폐지를 잡아 내집하다. 삼생(三牲)은 산 제물(祭物)로써의 새가지 짐승. 즉 소, 양, 돼지.
- 98) 가난 중에도 부모를 잘심기는 일. 속수(菽水)는 콩과 물. 즉 악식(惡食)
- 99) 兒呼寒前妻啼飢. 아이는 춥다고 웨치고 아내는 배고파 울다.
- 100) 한 모시락 밥

- 101) 一瓢飲. 한 그릇 물
- 102) 순(舜)은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나. 사람으로서는 다를 바 없다.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뜻.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에 “顏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 亦若是”
- 103) 성현의 경전(經傳)
- 104) 불을 못 꺼니. 못 넣으니
- 105) 노닥노닥 기운 옷
- 106) 공적(公的)으로 바치는 납세(納稅)
- 107) 금전 회계를 맡는 이속(吏屬)?
- 108) 맛 있는 음식을 (부모님께) 드린다.
- 109) 팔과 어깨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절의 뒷부분.
- 110) 미아냥 거러다.
- 111) 손길, 손길.
- 112) 풍자의 제자. 효성이 지극하였다함 ‘삼강행실도’의 ‘자루부미(子路負米)’ 조 참조.
- 113) 몸을 팔다.
- 114) 후한(後漢) 때 사람으로 효성이 지극한 사람.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권모순화에서 자랐는데 난리를 피해 어머니를 업고 산중에 피란 중 도적을 만났는데 도적이 그의 효성에 감복하였다고함 강희거효(江革巨孝)
- 115) 전조(前趙) 때 서강(西江)사람. 대효(大孝).
- 116) 동요하여 어지러운 모양. 여기서서는 어리석다는 뜻. 준우(愚愚).
- 117) 생선을 소금에 절인 반찬
- 118) 몸소 일을 잡고 하다.
- 119) 밥을 수북이 담음. 시경(詩經) 소아(小雅) 대동(大東)에 “有饁簋殮 有捩棘匕”란 것이 있음.
- 120) 무 등의 술로 잔치를 여는 일. 시경(詩經) 빈풍(邶風) 칠월(七月)에 “朋酒斯饗 曰殺羔羊 醑彼兕觥. 萬壽無疆”라고 있다.
- 121) 천덕꾸러기
- 122) 물을 뿌리쳐 바지도록 간아 잡아 당기기.
- 123) 사이
- 124) 힘 있는 붉은 다리. 신선(駘駘)의 본 뜻은 많은 모양을 말함
- 125) 전날에 익힌 공력
- 126) 목이 접질리어 부러짐.
- 127) 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
- 128) 소진(蘇秦)과 장의(張儀)를 말함. 종횡지술(縱橫之術)은 소진의 합종설(合縱說)과 장의의 연횡설(連橫說)을 말함.
- 129) 장량(張良)을 말함.
- 130) 군막(軍幕) 속에서 잔막을 채움
- 131) 소하(簫何)를 말함
- 132) 한신(韓信)을 말함
- 133) 조자룡(趙子龍)을 말함.
- 134) 중국 상해에 활판조각 사람 해 가운데의 구오(九鳥)를 쏘았다함 射日中九鳥
- 135) 춘추 시대의 조나라 사람 범익(范蠡). 큰 부자(富者).
- 136) 재연(計然)은 일명. 일형 제예(計倪). 사기(史記) 화식전(貨殖傳)에 “范蠡既雪會稽之恥 乃喟然歎曰 計然之策七 越用其五而得意 既已施於國 吾欲用之家.”라 하였다.

- 137) 춘추시대의 우(虞)나라 사람. 백리해(百里亥)가 초(楚)나라에서 잡혀져 되었는데 진(秦)나라의 목공(穆公)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양양 5마리의 가죽 곧 오코양피(五穀羊皮)를 몸값으로 주고 신하로 삼아 국정을 맡겼으므로 오코대부(五穀大夫)라 일컬음.
- 138) 範我馳駒 나의 말 볼로 달리는 것을 본받다.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상(上)에 나오는 말.
- 139) 춘추 시대에 말 잘탈던 사람. 논衡(論衡) 순성(率性)에 ‘王良登車 馬不罷驚. 堯舜爲政 民無狂愚’라고 있다.
- 140) 주128) 참조
- 141) 비록 오폐(五羸)처럼 일컬어지되, 오히려 춘추시대의 재유리 병주 다섯 사람 齊桓公(齊桓公) 진문공(晉文公) 진목공(秦穆公) 송양공(宋襄公) 초장왕(楚莊王)
- 142) 본디부터 모른다.
- 143) 육예(六藝)를 통달하지 못했다. 육예(六藝)는 예(禮) 악(樂) 사(射) 서(書) 어(御) 수(數)
- 144) 말모는 사람. 일반적으로 천역(賤役)에 종사하는 사람. 논어(論語) 술이(述而)편에 ‘富而可求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 145) 문과(文科)에서 과거 볼 때의 여러가지 체(體)의 글. 공령(功令)
- 146) 직분(職分)을 지키면서 독서를 함.
- 147) 입으로 먹는 일
- 148) 팔건을 만드는 것을 입으로 하는 일
- 149) 배우적
- 150) 하늘을 죽이는 도깨비늘.
- 151) 재삼 생각을 더하다.
- 152) 자기의 힘
- 153) 하늘의 도(道)를 가지고 땅의 이익(利益)으로 말미암았다. 효경(孝經)에 “天尊之道 因地之利”란 말이 있다.
- 154) 排布. 머리를 써서 일을 이리저리 조리있게 계획함
- 155) 누석
- 156) 끼어
- 157) 한 개는 절반에 나눈 한 줌.
- 158) 오직 앞으로 있는 사람
- 159) 되지 못할 삼살행이 사람들
- 160) 처가(喪家) 덕택으로 양반도 못 하는 양반.
- 161) 풀앗이
- 162) 주로 받고하는 서포의 관념.
- 163) ‘거의’의 사투리 경상도에서는 ‘얼추’라고도 함
- 164) 어림은
- 165) 바림이되 사투리
- 166) 뽀족한 끝으로 찍다.
- 167) 일을 딱 절반하여 정함. 여기서서는 큰 밑자리가 된다는 뜻
- 168) 일상 생활에 쓰이는 물건.
- 169) 일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가지.
- 170) 기운
- 171) 뭉이 약해지다.

- 172) 문방에 꼭 있어야 할 네댓, 종이, 벼루, 먹, 붓.
 173) 槐陰 피(槐)나무 그늘
 174) 미상
 175) 당(唐) 한유(韓愈)가 지은 글. 궁귀(窮鬼)를 보내는 뜻을 쓴 것임.
 176) 주공(周公)이 지었다고 전하는 시경(詩經)의 칠월(七月)장을 말함이는 농가 월령가다.
 178) 음력 7월 보름날. 이는 불교에서 나온 것. 민간에서는 여러가지 과실과 음식을 마련하여 먹고 늙.
 179) 시경(詩經) 빈풍(豳風) 칠월(七月)에 나오는 말. 양과 염소들 잡는다는 뜻.
 180) 봄술을 빚는다. 시경 빈풍 칠월에 보던 ‘爲此春酒 以介眉壽’란 句가 있음
 181) 182) 공당(公堂)에 올라가서 장수(長壽)함을 빈다. 시경 빈풍 칠월의 끝절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濟彼公堂 稱彼兕觥 萬壽無疆”
 183) 내평 성내란 말함
 184) 공사원(公事員) 가운데 우두머리
 185) 한(漢)나라 진평(陳平)을 말함. 진평(陳平) 향리의 언회에서 요리원이 되어 요기를 평갈하여 손님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가 제상(宰相)이 되면 이 요기를 나누듯이 공평하게 국가를 다스리겠다고 하였다. 진평제육(陳平宰肉).〈史記: 陳政丞 世家〉
 186) 우스운
 187) 하늘 천(天)자 하나도 쓸줄 모른다
 188) 알쿠리는, 마을앞에 향상불이 잠겨있는 논.
 189) 家家扶得醉人歸. 집집마다 술취한 사람을 부축하고 돌아오다.
 190) 박꽃이 울타리에 핀 것이다.
 191) 광월되면 추수하기.
 192) 구월되면 다당 탁기.
 193) 시월이면 벼 거두기.
 194) 시월이면 타작 마라치기.
 195) 노격(露積)과 창고(倉庫)
 196) 生氣福德. 만물을 발육 성장증게 하는 힘이 있는 좋은 난과 복이 많고 덕이 두터운 좋은날
 197) 선명 앞에서 비는 뜻으로 얇은 종이를 발살라서 광중으로 옮기는 일.
 198) 무탈행이?
 199) 웅작배기. 아주 작은 자배기
 200) 토지나 부락의 수호신(守護神)이 있다고 으르는 뜻.
 201) 부엌을 맡은 신.
 202) 미비다와 사투리
 203) 잘 더기를 비는 말.
 204) 조왕신의 터. 주201) 참조
 205, 206) 갓기
 207) 신불(神佛)이 사람에게 자식을 낳게 해 주는 일
 208) 한 피막의 씨를 베려 한섬의 소출(所出)을 내다.
 209) 미상
 210) 주94)참조
 211) 일정한 도로(賸租)를 물고 벌어쓰는 논밭이나 집터
 212) 곡식을 꾸어 주고 일년에 본 곡식의 절반이 되는 벌디. 흔히 봄에 꾸어주고 가을에 받음.

- 213) 나라에 바치는 세금.
 214) 천출(天出)로 나누어 받은 복.
 215) 무운 땅에 말뚝박기. 연지는 한자말 말뚝은 말뚝 박기의 준말
 216) 이해관계를 헤아려 계산하다.
 217) 나무신
 218) 출입할 때 온전한 치마가 없다.
 219) 물을 길고 걸구질하는 일
 220) 걸삼을 타면서 틈보아 채진발을 가꾸다.
 221) 시비(是非)를 모른다.
 222) 곤궁(困窮)한 것을 잘 지내어 당연한 것으로 여김. 한퇴지(韓退之)의 송궁문(送宮文) 참조.
 223) 아직 향인을 면치 못함.
 224) 도(道)를 이루어 덕이 섬.
 225) 북송(北宋)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 송학(宋學)의 시조도 일컬어지며 ‘태극도설’(太極圖說) ‘통서(通書)’를 저술, 종래의 인생관에 우주관을 통합 거기에 일관된 원리를 수립하였음.
 226) 창알에 있는 짐승도 제거하지 않음.
 227) 范文正公, 중국 북송 때 명신 범종엄(范仲淹)(990~1053).
 228) 당(唐)대의 문장가 한유(韓愈). 자는 퇴지(退之).
 229) 티끌로 높은 벼슬을 하던 집안.
 230) 착다리 죽을지언정
 231) 호미의 목. 즉 호미자루
 232) 관(冠) 앞을 꾸미는 옥(玉) 남자의 얼굴이 예쁜 것을 가리키는 말.
 233) 의관(衣冠)이 잘 정돈되어 있다.
 234) 손질하지 않은 엉클어진 머리
 235) 軟軟弱弱, 입은 옷조차도 이길 수 없는 약하디 약한 사람.
 236) 장씨의 셋째 아들이나 이씨의 넷째아들. 즉 성명이나 신분이 뚜렷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
 237) 어리다의 준말
 238) 사귀어 자기에게 유익한 새 벗. 정직(正直)한 사람. 신의(信義)있는 사람 지식(知識)이 있는 사람.
 239) 문전(門前)을 지나면서 들어가 보지 않음.
 240) 지위나 명망이 높아져서 부모를 영화롭게 봉양함.
 241) 또한 옳지 않다.
 242) 모든일에 다 닦아도 오직 한부분 만은 서투름.
 “顏淵 亦潛心於仲尼矣 未達一間耳” <法言, 問神>
 243) 지 오작(烏鵲)을 바다보다
 244)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줌.
 245) 과거(科擧)하여 벼슬함.
 246) 을연(兀然) 독좌(獨座)하여 연구만 하다.
 247) 以養父母, 부모님을 봉양하다
 248) 문(文)이나 무(武)는 하지 아니함
 249) 無恒心, 일정한 일에 항상 쓰는 마음이 없음
 250) 일정하게 늘 하는 생업이 없음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 無恒產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己。” <孟子, 梁惠王上>

- 251) 농군(農軍)이 된다는 말
 252) 빈정대며 웃음.
 253) 남의 잘못을 책할 때는 분명하게 할 일.
 254) 행동(行動).
 255) 버젓한 걸모양
 256) 행세하는 본.
 257) 흙물은 목거리.
 258) 바탕이 얇은 주숙(紬屬)의 한가지.
 259) 곡생초(曲生稍)의 사부디. 주숙(紬屬)의 한가지. 씨를 밟아갈지 아니한 부가지 일을 반분씩 바꾸어 판 것=갑생초(甲生稍)
 260) 흰에 따른 빛갈이나 모양새.
 261) 빛이 빨간 중국산 부채.
 262) 부채의 일종.
 263) 비진 헛갈.
 264) 자면(遮面). 얼굴을 가리다.
 265) 장기 바둑 두는 사다.
 266) 밝은 본을 가집
 267) 집안 식구.
 268) 겨운
 269) 한 묶음.
 270) 한 몸의 생활을 떠나는 일.
 271) 여기
 272) 것전을 지니는 바늘처럼 울리 버리어 관심을 두지 않음.
 273) 향함을 구하는 제책.
 274) 하늘은 힘써 농사짓는 이를 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275) 작은 들
 276) 미상, 밭에?
 277) 집안 살림잡이에 나날이 쓰이는 쓰임새.
 278) 桑麻雨露見平川. 상마(桑麻)에 오는 우르(雨露)를 평천(平川)에서 보다. 곡이 구곡(武夷九曲) 중 제 9 곡제일
 279) 굵고 가는 베를 짜다.
 직(織)은 가는 베 격(裕)은 굵은 베
 “爲縞爲裕. 服之無斃” 〈詩經 周南 葛覃〉
 280) 9월에는 등복을 마련함. 수의(授衣)는 등복을 마련한다는 뜻
 “七月流火 九月授衣” 〈詩經 豳風 七月〉
 281) 이디서
 282) 경영라고 조리있게 계획함.
 283) 나들이를 그만두다.
 284) 승문일이 있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방문하는 일.
 285) 남에게 비방이나 꾸짖음을 들음
 286) 衣幣緇袍立不耻. 헤여진 옷과 도포를 입고 있어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287) 市中所覩. 시장 물 일.
 288) 夜歸而讀古人書. 밤에 돌아와서는 옛 사람의 책을 읽는다.
 289) 기쁨이 없을 때 관 소나크가지를 태워 밝히는 불.
 290) 갑박 잊어버리다.

- 291) 於耕於讓廢一絲. 농사짓기와 글읽기는 그 어느 하나도 폐하기 어렵다.
 292) 一勤天下無難事.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293) 적에 맞는 달
 294) 여자의 생활 규모, 씩씩이.
 295) 험뜨게
 296) 방진하다
 297) 신(神)에게 손을 비비면서 소원(所願)을 비는 일
 298) 시렁
 299) 바깥 마당. 여기서는 사랑방에서의 처분을 말함
 300) 주297) 참조
 301) 원수
 302) 한휴의 곡식
 303) 一絲. 한 오라기의 실
 304) 띄게
 305) 절약할 수 있는 큰 조부.
 306) 옷은 몸만 가리기만 된다는 뜻, 즉 호화로운 옷이 아니라도 좋다는 뜻.
 307) 食取充腹. 밥은 배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
 308) 양을 채우다
 309) 근감한 선비
 310) 보병목(步兵木)으로 지은 옷. 보병목은 옛날에 보병의 옷감으로 바치던 거짚
 그 울이 같은 무명.
 311) 相輔 그 도리에 따랐던 귀종을 잔다.
 312) 비옥한 논
 313) 할 것 없이
 314) 가래도 흙을 파서 옮기는 일.
 315) 피로함을 잊다.
 316) 눈에 물을 띄우는 나무로 만든 기구
 317) 옥마루에 다다라야 싹을 파는 일.
 318) 하늘이 흐려 비오기 전.
 시경(詩經) 민풍(邶風) 치효(鶉鴒)에 “逆天之未陰雨 徹彼桑土”란 문구가 있다
 319) 음해
 320) 납일(臘日). 동지 뒤의 세째 술일(戌日)
 321) 음력 정월 초여드렛날.
 322) 정월 보름날의 별칭
 323) 24절기의 넷째. 3월 21일 절후에 들.
 324) 냉이
 325) 입춘(立春)이 지난 뒤 첫번째 돌아오는 갑자일(甲子日)
 326) 가뭄이 심하여 세상이 붉게 다다.
 327) 입하(立夏)가 지난 뒤 첫번째 갑자일(甲子日). 이날 비가오면 그해 큰 장막이
 질다고 함.
 328) 입추(立秋)가 지난 후 첫번째의 갑자일(甲子日)
 329) 입동(立冬)이 지난 후 첫번째의 갑자일(甲子日)
 330) 절기(節氣)
 331) 24절후의 18째인 추분(秋分)과 입동(立冬) 사이의 절후.
 332) 농사에 경력이 많은 신실한 농부.

- 333) 時中. 언제나 어김없이 때에 맞다.
- 334)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임금들. 삼황(三皇)은 천황씨(天皇氏) 지황씨(地皇氏) 인황씨(人皇氏) 다른 세 사람을 드는 수도 있다.
오제(吾帝)는 소호(少昊) 진옥(顓頊) 제곡(帝嚳) 요(堯) 순(舜)
- 335) 우왕(禹王) 탕왕(湯王) 문왕(文王) 무왕(武王)
- 336) 중국 주나라의 정치가 이름은 단(旦).
- 337) 공구(孔丘)
- 338) 공자 이후 유학의 도통인 안회(顔回) 증삼(曾參) 자사(子思) 맹자(孟子)
- 339)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 정이(程頤) 정호(程顥) 주희(朱熹)
- 340) 쑤대(蘇)가 무성해도 돌보지 않음
“不治曰蕪 多草曰穢” 〈楚辭 招魂註〉
“田彼南山 蕪穢不治” 〈楊惲, 報孫會宗書〉
- 341) 중국 하(夏) 은(殷) 주(周) 3대에 실시된 전제(田制), 우물정(井)자와 같이 9로 땅을 나누고 그 중앙은 공전(公田) 나머져 8은 사전(私田) 으르함
- 342) 物外田園朱陳村. 주세를 뿌리한 전원인 주진촌(朱陳村). 주진촌은 주씨와 진씨만이 살아 데대로 혼인하여 한 마을을 이루고 세의(世誼)가 깊었다함
- 343) 선원(仙源)을 분별 못함
- 344) 학식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
- 345) 미상
- 346) 밭가운데 높은 곳에서 밭을 갈면서 편안 안(安)자를 자손에게 물려 주겠다담 방덕공(龐德公) 의 이야기
“龐德公 字子魚 又山民, 襄陽人. 劉表數謂不屈 耕於壠上 妻子耘田 表指曰 何以遺子孫 公曰 世皆遺之危 余今遺之安, 後携妻子 隱鹿門 採菜不返”
〈史要彙選 卷6, 17〉
- 347) 허부(許父) 소유(巢由)를 말함
- 348) 송 나라 장횡계(張橫渠)를 말함
- 349) 밭을 갈아서 생활함
- 350) 역세(曆歲)는 차질이 없어 새로운 일이 시작되다.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寅賓出日 平秩東作…라고 있음
- 351) 공자의 제자 번지(樊遲)가 농사짓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을 공자에게 물은데서 나온말. 논어(論語) 자로(子路)에
“樊遲請學稼 子曰 吾不如老農 請學爲圃 曰 吾不如老圃”라고 있다.
- 352) 집을 위하여 농사짓다.
- 353) 作之不已成君子
- 354) 時祭. 철따라 지내는 제사
- 355) 忌祭. 해마다 죽은날에 지내는 제사
- 356) 茶禮. 한철의 명절에 지내는 차례
- 357) 제사를 펼함. 펼사(厥祀)
- 358) 신명(神明)이 제물(祭物)을 받음
- 359) 생겨 나오게 될 그 근본을 잊지 않고 깊음의본 뜻
- 360) 享福. 복을 누림
- 361) 쪽제비파에 속하는 짐승
- 362) 고기와 자라 여기서는 해산(海產) 동물을 총칭함
- 363) 매파에 속하는 새. 길들이 작은새 등을 잡는데 씀
- 364) 佳雀?

- 365) 그릇
 366)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
 367) 제사 때 쓰이는 쌀
 368) 김승의 고기로 만든 음식 등축
 369) 성격(性情)
 370)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다
 371) 닭패지 개등의 가죽
 372), 373), 374)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상(上)에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 可以衣帛矣 雞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 可以食肉矣.”라고 있다.
 375) 덕망이 있는 사람이 타는 수레
 376) 호젓한 골에 말뚝이 쏠이 나다
 377) 白駒. 흰 망아지
 378) 세해, 삼복(三伏)과 납향(臘享)의 총칭
 379) 신 같은 때에 양·염소 등을 잡아 잔치를 베풀.
 380) 취하지 않고는 돌아 갈 수 없다.
 381) 문유사(文裕社)와 같은. 한(漢) 고조(高祖)의 고향 풍(豐)에 있는 사(社)의 이름. 전하여 향리(鄉里)를 말함
 “高祖少時 常祭粉榆之社 及移新豐 亦立焉.”〈西京雜記二〉
 382) 농사꾼 등이 농번기에 공동으로 취락하기 위한 마을 단위의 모임
 383) 분수를 지키어 만족할 줄 알
 384) 아들 조카 형제
 385) 남을 가르침에 게을리 하지 않음. 공자(孔子)의 말.
 386) 온자의 세가지 즐거움.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教育之 三樂也”〈孟子〉
 387) “行有餘力 則以學文”〈論語 學而〉
 388) 물을 뿌리고 물러 남의 말에 따라 대답하는 일이나 물고 나는데 있어서의 의절
 389) 극진하게 타이르고 인도함
 390) 相對如賓出鱖. 규구준승(規矩準繩)의 줄임말. 사물의 준칙
 391) 물에 점심을 가져간 아내는 남편을 손님처럼 상대한다는 말
 392) 지게미와 쌀겨로 만든 나쁜 음식을 싫어하지 않음
 393) 治園紡績. 채전을 가꾸고 길쌈을 하는일
 394) 피르문
 395) 물을 길고 절구질 하는 일
 396) 問起厝. 잡수시는 것과 기거하는 일의 불편 유무할 묻는 일
 397) 예상(禮相)이 치전(致奠)을 돕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觀於祭祀 納酒漿 羞豆 蕡醢 禮相助奠”이라고 있다.
 398) 看檢. 검사함
 399) 술상이나 밥상차림이 예의에 맞다.
 400) 규방(閨房)에 하는 일이 모다 정연(整然)하다
 401) 천자의 친경전(親耕田)
 402) 識力 사물을 분별하는 힘
 403) 相資 서로 돕다

彙 報 (1979. 1~12)

研究發表 및 會務日誌

第13次 日 時: 1978. 12. 20 ㅎ. 3

장 소: 釜山大 경영대학원 세미나실

발 표 자: 임종찬(동의공전)

제 목: Anomie의 출현 —사실시조의 경우—

○이날 研究發表를 마치고 「韓國文學論叢」 創刊記念 自祝宴을 베풀다.

第14차 日 時: 1979. 1. 26 ㄷ. 11

장 소: 釜山大 經營大學院 세미나실

발표자 및 제목

崔東元(釜山大): 金壽長의 老歌齊경영에 대한 考察

金垓五(釜山大): 處容의 비전 —金春洙의 無意味詩論—

新入會員: 姜仁秀, 明炯大, 鄭尙垓

第15차 日 時: 1979. 2. 27. ㅎ. 2

장 소: 부산대 경영대학원 세미나실

발표자 및 논제

金重河(釜大): 開化期討論體小說 研究

李炳赫(釜山工專): 稼亭의 思想과 文學

新入會員: 곽동훈, 심병오

第16차 日 時: 1979. 3. 30 ㅎ. 2

장 소: 경영대학원 세미나실

발 표 자: 盧 在 燦

題 目: 辛夕汀과 自然

第17차 日 時: 1979. 4. 28. ㅎ. 2

장 소: 경영대학원 세미나실

주제발표자: 김 중 우

주 제: 新羅文學의 오늘과 내일

회원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음.

○이어서 1979년도 정기 총회가 있었음.

※ 1979년도 정기총회

1. 참석인원 : 19명

2. 회칙에 따라 임원 개선

회 장 : 김 중 우 (유임)

총무이사 : 류 타 일 (〃)

연 구 : 성 호 주 (신임)

출 판 : 김 중 하 (유임)

감 사 : 김 승 찬 (신임)

정 상 박 (〃)

3. 토의사항

ㄱ. 論文集刊行件 : 年 2回 原則, 論文枚數 80枚내의

ㄴ. 발표방법 : 변화있는 방법을 모색할 일

4. 新入會員 : 李東英, 이규정

第18차 일 시 : 1979. 5. 20

장 소 : 龜岡書院(慶北 月城郡 安康邑 楊月里 李益齋奉安書院)

발표자 및 論題 :

柳鐸一(釜山大) : '益齋亂藻' 刊行에 對하여

李炳赫(釜山工專) : 益齋의 思想과 文學

○ 이날 慶州 玉山書院을 두르고 龜岡書院에서 發表를 마친 뒤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둘러 釜山으로 돌아옴.

第19차 일 시 : 1979. 6. 29(火) 중. 3

장 소 : 경영대학원 세미나실

발표자 및 論題

양광용(釜山大) : '學之光'에 發表된 新體詩

姜仁秀(중앙여고) : 人情과 鄉愁 —吳永壽論—

新入會員 : 박 천 석(부산여전)

第20차 일 시 : 1979. 7. 30 자. 10

장 소 : 師大 206교실

발표자 및 論題

成鎬周 : 上古漢譯 3歌謠에 대한 고찰

강남주 : 韓國近代文學의 起點문제

○ 초청특강 :

김영송교수 : 現今西歐地域韓國學研究動向

第21차 : 研究發表會 및 金梭五교수 譯 '文學와 時間現象學' 出版記念會

일 시 : 1979. 9. 1. ㅎ. 2

장 소 : 釜山大學校內 時習館

발표자 및 제목

임 중 찬 : 민요와 사실시조의 美學的 접근

金 亭 子 : 꿈으로 본 古代小說의 文體

○이어서 出版記念會

本學會서 기념회와 만년필 증정함.

第22차 일 시 : 1979. 9. 28 ㅎ. 3

장 소 : 京慶대학원 세미나실

발표자 및 논제

김승찬(釜山大) : 元曉의 文學思想

鄭尙朴(東亞大) : 돌봄의 구조

第23차 일 시 : 1979. 12. 28. ㅎ. 2

장 소 : 文理大 105강의실

發 表 者 : 李 東 英(釜山大)

題 目 : 曹南冥과 그 學叢

○이날 발표를 끝내고 1979년도 忘年會를 가졌다.